

정청래 “공천권 내려놓겠다”... ‘당원주권’ 경선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전남 나주를 찾아 민주당의 공천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지역민들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APEC 국민성과 및 민주주의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 개혁은 당 대표 권한부터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회의원들도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권 행사에서 권한이 가장 큰 당 대표부터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원들이 완벽하게 100% 경선을 하면 당 대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하면서 “그 누구라도 검증 통과해 후보 자격을 얻은 당원이라면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억울한 낙선자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가 많을 경우 A조, B조로 나눠 예선과 본선을 진행하겠다.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뽑힌 후보가 가장 강한 후보가 된다”고 거듭 공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방선거 승리도 다짐했다.



22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APEC 국민성과 및 민주주의의 미래 비전’ 특별강연이 열리고 있다. /뉴스1

나주시 APEC 성과·민주주의의 미래 비전 특별 강연 “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 지름길 열어달라”

정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해안과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튼튼히 쌓아온 대한민국에게 ‘잃어버린 10년’을 안겨준

이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였다. 국가경쟁력 11위였던 대한민국을 두 정권에서 각기 24위, 26위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

위로 올려놓지만, 곧장 윤석열이 1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렸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름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당당하게 외교 현장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의식이 가장 높은 전남도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광산구의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5m로 확대해야”

효율적인 교통안전 향상 위한 이격거리 확대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5미터 이격거리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안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은 규정상 횡단보도에서 2~5미터 전방에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3미터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사고 비율은 35%로, OECD 평균의 약 1.9배에 달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미터 내외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방안은 적은 비용으

로 교통안전 향상을 이루는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차선 재도색 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가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상호 협력해 교차로 및 보행자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여건 점검과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산구, 광주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민주 박지원 “지금은 내란 종식, 다음은 개혁”

광주 시민사회단체 상대 특강... “호남서 개혁 주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지금은 완전한 내란 종식, 다음은 개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도록 호남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빛의 혁명 1년, 호남 정치의 길’이라는 주제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특강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때 개혁 논의를 차단 한 바 있다”며 “내란 청산 집중과 이재명 후보 보호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집권했다.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며 “올해는 특검을 마무리하고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내년부터는 정권 재창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 개혁이다. 개혁은 항상 추진 주제·시기·방법·내용 등 디테일에 약마가 있다”며 “개혁 논의도 호남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절제되고 생산적인 논의

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혁 요구가 성숙되면 호남과 국민 의견을 경청,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직도 견제된 내란 세력들을 이대로 두면 민주주의는 흔들린다”며 “검찰·사법·언론 개혁 즉 강력한 3대 개혁이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정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장관의 위압도 지지도 없었다.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결하고 검찰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게 전부이다”며 “남은 문제는 검찰 내부 문제를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표출한 일부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 이중적 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란 청산의 피로감이 왔다고 일부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나라 걱정이 아니라 내란 세력들의 자기 보호 논리”라며 “개복 수술 중에 환부를 보고도 덮을 수는 없다. 환부만 신속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역사를 주도하고 정의의 선봉에 섰던 호남은 ‘대통령은 민생통합, 당



더불어민주당박지원 의원이 2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4층에서 ‘빛의 혁명 1년, 호남 정치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진보연대, 민주노동당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시국회의가 참여하는 광주개혁네트(준)이 마련했다. 사진 = 박지원 의원실 제공

은 강한 개혁, 특검은 수사라는 3대 분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개혁네트(준)이 주최했

다. 광주개혁네트에는 광주진보연대, 민주노동당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시국회의가 참여하고 있다. /김병남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다”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유 모델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서도 “예방 중심·복원력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며 “올해 G20 재난위험경감 각료회의가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국은 유엔세계식량계획과 식량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뉴스1

2025 장성 방문의 해 Jangseong 2025 100% 장성이보내온 힐링 초대장 천년고찰 백양사(쌍계루) 장성군 Jangseong